개소세 처방에도 무력한 車시장 내년엔 더 암울

아듀 2018 전망 2019

❷ 자동차 산업

한국지엠·르노삼성 내수부진

BMW화재 논란에도 판매 선방

내년 수출 감소 등 비관적 전망

쌍용차 2019 G4 렉스턴.

현대차 신형싼타페 주행모습.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선호 현상이 한층 강해지면서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해외 수출은 물론 내수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올해 1~11월 내수 판매는 140만6680대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없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다. 해외 판매의 경우 609만8347대로 0.7% 증가했지만,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한국지엠·르노삼성자동차 내수 부진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국내 판매량을 늘려간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만년 꼴찌'였던 쌍용차는 올해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을 누르고 내수 시장 3위에 올라섰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출시한 신형 싼타페와 그랜저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 11월까지 내수 시장서 65만624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판매(63만5578대)량을 넘어선 수치다.

기아차는 같은 기간 44만800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 증가세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판매 성장은 K시리즈가 이끌었다. K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운 승용차 모델이 내수에서 지난 1~10월 동안 38만9145대를 판매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지난 11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8만2889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12만525대보다 31.2% 급감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판매량 10만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내수 부진은 올해 초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 국내시장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결국 한국지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피로감은 높아졌고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

르노삼성도 11월까지 내수 판매 7만9564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8만9270대)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신차 모델 실종이 판매량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와 G4 렉스턴의 흥행으로 내수 판매 3위를 기록했다. 쌍용차는 올해 1~11월 누계에서 9만8484대의 실적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4위인 한국지엠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내수 3위는 확정적이다.

◆수입차 논란속 상승세 지속

올해 수입차 시장 최고의 화두는 'BMW 화재'였다. 올 여름부터 520d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 발생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자 BMW는 지난 7월 520d 모델을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현재 'BMW 차량 화재'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재 논란에도 BMW는 판매실적에서 변함없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BMW의 하반기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8월 2383대, 9월 2052대 10월 2131대, 11월 2476대를 판매하는 등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입차 판매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입차 판매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벤츠코리아는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6만 4499대로 12월 판매량이 5600대만 넘어서도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연간 판매량 7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먹구름'

국내 완성차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판매가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도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2015년 456만대, 2016년 423만대, 지난해 411만대, 올해 400만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400만대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내년 시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르노삼성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올해 강성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완성차 5사 중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검찰이 엔진결함 관련 리콜 진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3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의 리콜을 진행할지 내년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성운·정연우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車그룹, 중소 부품 협력사 지원 나서

경영자금 지원·미래차 부품 육성 등

상생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꾸준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차그룹은 13일 중소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친환경차·미래차 부품 육성 지원 ▲1~3차사 상생 생태계 강화 등에 총 1조6728억원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 및 신기술 투자 등의 지원을 위한 '미래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협력사의 부품 연구·개발(R&D) 및 양산 투자비를 조기 지급한다. 중소·중견 부품업체 경영 안정화 긴급 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3차 협력사 대상의 친환경차 및 미래차 부품 개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넥쏘 수소전기차 증산 목적의 투자비를 조기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협력사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협력사 상생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1~3차 협력사 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소 부품 협력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실력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2·3차 중소 협력사의 ▲경영 개선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고용 지원과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가 핵심인 '선순환형 동반성장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그 동안 현대차그룹은 ▲2002년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2006년 전담 조직인 상생협력추진팀 구성 ▲2011년 R&D기술지원단 신설 ▲2012년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설·추석 등 매 명절 때마다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매진해 왔다. /양성운 기자

SK텔레콤-도이치텔레콤

소규모데이터센터로 5G를 생활 곳곳에

SK텔레콤이 도이치텔레콤과 손을 맞잡고, 5G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도입한다. 5G 지연 속도가 더 줄고, 초고용량 통신도 더 빨라진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인 모바일엣지엑스와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란 고객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나 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보통 데이터는 스마트폰에서 기지국, 교환기, 유선망, 서비스사의 데이터센터로 이동한다. SK텔레콤은 그 중 기지국이나 교환기에 소규모 5G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과 맞닿은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를 즉각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지연시간이 단축된다.

경기도 성남시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박종관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오른쪽)과 레아 마허 모바일엣지엑스(MobiledgeX) 최고운영책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5G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모델에도 활용 가능하다. 스마트팩토리 안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다. 공정 과정에서 주고 받는 데이터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사업에 중요한 데이터를 공장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어 데이터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성능 높인 S펜 '삼성 노트북 펜S' 출시

전작 대비 2배 빠른 반응속도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 적용

삼성전자가 '삼성 노트북 펜(Pen) S(사진)'를 14일 국내에 출시한다.

삼성 노트북 펜 S는 전작 대비 2배 빠른 반응속도를 지원하는 S펜을 탑재했다. 아날로그 펜과 같이 자연스러운 필기 경험을 제공하며 0.7㎜로 펜촉 두께는 동일하지만, 각각 다른 소재의 세 가지 펜팁을 제공해 사용자가 스케치나 필기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펜팁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 노트북 펜 S은 S펜으로 쓴 손글씨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각종 도형과 공식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네보'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또한, 강의 내용을 녹음하면서 수학 공식이나 그래프 등 키보드로 타이핑하기 어려운 내용도 S펜으로 적고 저장할 수 있는 '보이스 노트 with 펜', 삼성 노트,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한다.

삼성 노트북 펜 S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품 옆면에 다이아컷 공법을 적용해 제품의 세련미를 더했다. 삼성 노트북 펜 S는 '오션 블루'와 '플래티넘 화이트' 모델로 출시되며, 각각 라임과 실버 색상의 S펜을 탑재했다.

삼성 노트북 펜 S는 360도 회전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한번에 노트북 모드에서 태블릿 모드로 변환할 수 있다. 6.7㎜의 얇은 좌우 베젤(테두리)과 178도 광시야각, 플리커 프리 기능이 적용된 '리얼뷰' 터치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며 화면의 몰입감을 높여준다.

삼성 노트북 펜 S는 크기와 사양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인텔 8세대 쿼드코어 i7 CPU를 탑재한 최상급 모델의 경우 38.1㎝ 제품인 NT950SBE-X716이 278만원이며 33.7㎝제품인 NT930SBE-K716이 244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